

#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 Recent Trends in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이 명 희(Myeong-Hee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4. 4 자료수집 방법   |
| 2. 선행연구          | 4. 5 자료분석 방법   |
| 3. 연구내용 및 방법     | 4. 6 가설설정의 여부  |
| 4. 연구결과의 내용분석    | 4. 7 이론의 유무    |
| 4. 1 문헌정보학 연구추이  | 4. 8 연구비 지원 현황 |
| 4. 2 주제별 생산성     | 5. 결론 및 제언     |
| 4. 3 연구방법의 동향 분석 |                |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문헌정보학계의 대표적인 3개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597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단계에서 고찰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가설설정의 유무, 근거한 이론의 유무, 연구비 지급 유무 및 종류의 순서로 내용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자주 연구된 주제는 디지털도서관, 도서관경영, 정보검색, 웹정보원, 분류목록, 참고봉사와 정보서비스, 전문직(교육)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대표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 실험연구방법과 시스템설계 및 구축방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웹정보 자원의 자료수집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정보관리학회지에서는 웹정보원과 실험이 질문지보다 더욱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대학으로부터 수혜받은 경우가 144편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28편, 정보통신부 4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편, 기타 18편의 순이다. 제언으로 웹정보원에 대한 연구방법론 개발, 질적연구, 공동연구, 연구지원금 독려 등에 관해 언급하였다.

### ABSTRACTS

This study used content analysis to examine the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from 1997 to 2001. Analyses measured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 data collection methods, data analysis methods, hypotheses, theories and research funds. Brief consideration is given to possible future methodological trends: web-based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cademic society and librarians and research fundraising.

키워드: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연구주제, 연구비, 질적연구, 공동연구, 웹정보원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mehelee@sangmyung.ac.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9월 16일

##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된지도 어느새 40년이 넘었고, 그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연구와 노력이 거듭되어 많은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성장의 바탕에는 문헌정보학계의 이론적 연구와 도서관계의 현장적 경험 연구가 접목되어 문헌정보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에는 서구에서 도입된 계량적 연구 위주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도입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최근의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가 엄밀성이나 정교함, 통계적 분석의 도입과 해석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양적 평가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계량적 수치와 통계분석에 의한 가설검증만을 위주로 한 양적 연구에 문헌정보학 연구가 지나치게 편중된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설문원, 차미경 2001).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 연구된 지 거의 반세기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의 발전과 성장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문헌정보학의 이론 개발과 응용은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사회과학 분야 제 학문의 발달에 비해 연구에 종사하는 인구나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의 다양성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연구는 이론개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질적 불균형 및 방법상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

방법에 근거한 연구가 아니라 견해를 밝히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동열 1993; Powell 1995). 또한, 일반적 도서관 현상에 대한 서술적이며 의견 지향적인 주장이나 현황설명적인 연구와 지엽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오고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문적 성숙과 연구의 개선을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연구대상의 설정과 함께 연구목적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위한 학계와 현장의 상호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와 이론정립을 시도하여야 하며,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 평가하여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의 내용을 연구방법론 및 내용분석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째, 국내외적으로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논문의 분석에서 연구방법론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된 논문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상의 방향 제시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문헌정보학이 종합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연구방법론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 및 제언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문헌정보

학의 학문적 전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학문의 연구방향, 학문의 발전추세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주제와 관심영역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의 편중과 분포, 추세 등 여러 상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비 지원의 유무와 지원기관에 대한 분석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다각적인 변인을 가지고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본 논문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의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199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론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국내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특히 질적인 연구를 시도한 연구논문은 거의 없으나 최근에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김정근, 이용재 1996; 김정근, 이수상 1997).

문경민(1993)은 문헌정보학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과 3개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1950년대 말 이래 1991년까지의 문헌정보학의 연대별 추세 및 발전 방향을 규명해내기 위해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문헌정보학 연구가 80년대 이후 교수집단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학회지의 연구주제는 보다 이론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반해 학위논문은 도서관/정보봉사 및 활동과 정보추적 및 검색에 관한 실무지향적 연구임을 밝혔다. 또한 학위논문에서는 주로 질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연구가, 그리고 학회지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자료분석법이 이용되었음을 밝혔다.

같은 해, 정동열(1993)은 도서관학(1970년~1992년), 정보관리학회지(1984년~1992년), 서지학연구(1986년~1991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론 및 내용분석방법은 3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연도별 발표논문 수와 연구자의 유형별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주제, 연구방법, 가설설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통계기법), 이론의 효율성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김길자(1995)는 1959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및 시대적 특징의 변화 및 문제점, 연구의 흐름 등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항목은 연대구분과 주제영역,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영역으로는 도서관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의 정보학 영역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각 주제영역에 대한 연대별 분포를 보면 1959~1968년대는 자료연구영역이, 1969~1978년대는 기초이론과 도서관 경영 및 행정영역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보학과 기초이론, 도서관 활동, 도서관 경영 및 행정영역 등의 연구에서 고르게 연구된 것으로 밝혔다. 자료수집 방법

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질문지법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관찰법, 면담법, 내용분석법 등의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에서 조사연구, 문헌연구방법 등의 이용비율이 높으며 사례연구 및 인용분석 등의 연구방법은 다소 적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정동열(1993)의 후속연구를 연구동기로 언급하는 조찬식(1999)의 연구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연도별 연구논문 수의 추이, 연도별 연구자의 분포, 연도별 연구 주제별 동향, 연구방법별 동향, 자료수집에 관련된 연구방법별 동향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 문헌정보학의 연구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실무진보다 교수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정보조직 및 검색분야에의 연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연구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분석/설계, 서베이 연구 등이 자주 이용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들과 동시에 계량정보학에 관한 관심과 통계기법을 이용한 방법론이 점점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언으로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실무의 문제해결과 이론의 현장 적용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폭넓은 학제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균형적인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의 내용과 적용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관주와 변자영(2000)은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 및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연구논문 10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0편의 논문을 양적 방법

을 택한 연구, 질적 방법을 택한 연구, 인용분석 방법을 택한 연구의 3그룹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이들은 8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 연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수그룹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조사연구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료의 해석방법에 통계적 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학제간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가 요망되며,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주로 특정한 기간동안에 발표된 연구논문은 방법론별로 분석하거나(Feehan, Gragg and Havener 1987; Kim 1996; Powell 1995), 한 주제분야에 관련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들로 구분된다(Callison 1997; Dimitroff 1995; Julian 1996). 한 주제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Callison은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에 관련된 철학박사 학위논문과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비교하여 연구방법론을 분석하였다. 그는 사례연구와 실험연구로 진행된 논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베이 연구, 인용분석 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Dimitroff는 특수도서관에 관한 문헌을 가지고 연구방법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인 문헌정보학 분야보다는 덜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됨을 밝혔는데 특수도서관 분야에서는 조사연구가 60%를 넘는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연구방법임을 보여주었다. Julian은 정보요구와 사용에 관련한 문헌을 분석하였는데, 인용된 참고문헌의 다학문간의 정도를 측정하

였으며, 이 문헌이 이용자의 인지과정과 관계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디자인과 이용에 관계되는지 살펴보고 사용된 연구방법론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잡지타입, 저자타입, 논문타입, 이용자 그룹, 이론에 근거한 여부 등에 관해 이루어졌다.

이 두 그룹 이외에도 연구방법론 자체에 대해 다른 연구로서 정보검색연구에서 질적인 방법론을 깊이 있게 연구한 Fidel(1993)의 연구와 최근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경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양적/질적 방법론을 모두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Powell(1999)에 의해 행해졌다. Fidel은 정보검색 분야에서 질적인 연구가 꾸준히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보검색 분야에서 질적연구의 특성을 언급하고, 이를 사용한 논문에 대해 리뷰하였다. 또한 그는 질적연구의 특성으로는 학문의 다양성, 다중방법의 사용, 인간성, 과학성 등을 주장하였으며, 문헌정보학 분야 질적연구의 적합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Powell은 문헌정보학의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정보학 분야와 도서관학 분야로 나누어 사용된 다양한 계량적 연구방법론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사례연구, 전기연구, 역사연구 등의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 뿐 아니라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법, 근거이론, 상징적 상호주의, 담론 분석 등을 문헌정보학에 도입하여 연구방법의 지평을 넓히는 일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실질적으로 학계의

연구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헌정보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의 3개 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표에서는 “문헌정보”라 칭한다), 한국정보관리학회지(표에서는 “정보관리”라 칭한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표에서는 “도서관정보”라 칭한다)이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발표된 연구논문 총 597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2002년 6월 현재 36권 2호가 발간된 상태로서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투고 논문의 주제영역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회칙 제1장 3조에 의하면 “한국문헌정보학회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국내외의 관련 학회와의 유대를 통하여 문헌정보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수록범위도 문헌정보학 전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002년 6월 현재 33권 2호가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서는 “수록될 주제의 범위는 도서관·정보학 및 그 관련분야로 한다”고 명시하여 이의 주제범위도 문헌정보학을 망라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발간되는 정보관리학회지는 2002년 6월 현재 19권 2호가 계간으로 발간되었다. 정보관리학회지의 투고요령에서는 “투고논문은 정보관리에 대한 이론 및 응용분야의 미발표 학술 논문으로 정보학 관리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학회지에 비해 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주제범위가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내용 분석 방법은 3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연도별 발표 논문 수와 연구자의 수, 유형별 직종분포를 조사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 연구방법론 단계에서 고찰한 1) 연구주제, 2) 연구방법, 3) 자료 수집방법, 4) 자료분석방법(통계기법), 5) 가설설정, 6) 근거한 이론의 유무, 7) 연구비 지급 유무 및 종류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주제와 다른 변인들(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등)과의 관계, 연구지원비와 다른 변인들(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등)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각 학회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의 성격이 3 학회지별로 다른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개별 학술지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전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학문의 연구방향, 학문의 발전 추세 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주제와 관심영역의 전반적인 흐름, 주제의 편중과 분포, 경향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비 지원의 유무와 지원기관에 대한 분석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다각적인 변인을 가지고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의 제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둘 이상의 복수의 주제항목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연구자가 임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일 주제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복합주제의 다양성을 주제항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복수의 연구주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된 연구논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한 논문에서도 연구자가 임의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한 단일 연구방법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된 연구방법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세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추리통계를 사용한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임의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통계기법 1가지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다양한 통계기법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4. 연구결과의 내용분석

### 4. 1 문헌정보학 연구 추이

분석된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논문의 수를 학회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는 지난 5년간 2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정보관리학회지에는 17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는 215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전체적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이후 각 학회지에 실린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이후에 각 학회지의 발행주기가 종래의 반년간 등에서 계간으로

바뀌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논문당 공동연구자의 수를 살펴보면 1인 단독연구는 73.53%이고, 2인 연구는 20.43%, 3인 연구는 4.18%, 4인 이상 공동연구는 1.84%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학회지에 발표된 각 논문당 공동연구자의 수를 살펴보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는 단독연구가 72.17%인 153편에 달하고, 2인 연구는 43명(20.28%), 3인 연구는 10명(4.72%), 4인 이상의 연구는 6명(2.83%)에 달했다. 정보관리학회지에서는 1인 연구가 112명(65.88%)이고, 2인 연구가 42명(24.71%), 3인 연구가 11명(6.47%)이었으며 4인 이상 공동연구가 5명(2.94%)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자수를 보면, 1인 연구는 174명(80.93%), 2인 연구는 37명(17.21%), 3인 연구는 4명(1.86%)이고 4인 이상 연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단독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회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이며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은 정보관리학회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유추해 볼 때 단독연구가 활발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인문과학적인 성격이 더 강하고 공동연구가 활발한 정보관리학회지는 사회과학 내지는 자연과학적인 경향이 더욱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표 2〉는 저자의 분포현상을 분석해 보고 저자의 직종유형별로 생산성을 분석한 것이다. 저자의 다양성은 학문영역의 다변화와 균형적인 학문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들은 점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수집단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서 이론적 연구와 그에 따른 지식이 실무에 응용되지 못하고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 또는 현장과 괴리되어 현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연구에 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현장 사서들은 이론적 연구와 이의 현장에의 접목 또는 응용의 상호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찾아내고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전문 연구자 집단과 실무사서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의 장 혹은 연구개발 집단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회 주관 세미나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현장 사서들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고 공동으로 해답을 찾는 것도 연구와 현장의 갭을 메우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연구자들과 실무자들간의 공동연구는 이론과 실무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용적인 학문의 추구가 가능할 것이다.

〈표 1〉 학회지별 연구논문 당 공동연구자의 수 (계의 %는 개별 학회지별로만 산출함)

| 저자수/학회지 | 문헌정보         | 정보관리         | 도서관정보        | 총계(%)        |
|---------|--------------|--------------|--------------|--------------|
| 1인      | 153(72.17%)  | 112(65.88%)  | 174(80.93)   | 439(73.53%)  |
| 2인      | 43(20.28%)   | 42(24.71%)   | 37(17.21%)   | 122(20.43%)  |
| 3인      | 10(4.72%)    | 11(6.47%)    | 4(1.86%)     | 25(4.18%)    |
| 4인 이상   | 6(2.83%)     | 5(2.94%)     | 0(0.00%)     | 11(1.84%)    |
| 계(%)    | 212(100.00%) | 170(100.00%) | 215(100.00%) | 597(100.00%) |

〈표 2〉 학회지별 연구자의 구성 비율 (계의 %는 개별 학술지로만 산출함)

| 직종/학회지  | 문헌정보        | 정보관리        | 도서관정보       | 총계(%)        |
|---------|-------------|-------------|-------------|--------------|
| 교수      | 164(77.35%) | 122(71.76%) | 175(81.39%) | 461(77.22%)  |
| 학생(석박사) | 6(2.83%)    | 10(5.88%)   | 1(0.46%)    | 17(2.84%)    |
| 강사      | 16(7.54%)   | 12(7.05%)   | 15(6.97%)   | 43(7.21%)    |
| 사서      | 14(6.60%)   | 20(11.76%)  | 17(7.90%)   | 51(8.55%)    |
| 기타      | 12(5.66%)   | 6(3.52%)    | 7(3.25%)    | 25(4.18%)    |
| 계(%)    | 212(100%)   | 170(100%)   | 215(100%)   | 597(100.00%) |

3 학회지의 교수직종의 투고 비율은 77.22%로서 타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사서직종 8.55%, 강사직종 7.21%, 기타(문헌정보학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 4.18%,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 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으로서(조찬식 1999; 최희곤 1999) 교수집단 이외에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나 현직 사서들이 학회지 투고를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함으로써 학회지가 명실공히 다양한 집단의 학술발표의 장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특기할 사항은 3 학회지 중에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경우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보관리학회지에는 현장 사서들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나타났다. 강사들은 3 학회지에 고르게 투고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문헌정보학 이외의 타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비교적 많은 논문을 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4. 2 주제별 생산성

주제구분의 설정은 연구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므로 1) 연구목적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2)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이어야 하며, 3) 분류원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최희곤 1999)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주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취급한 주제구분을 고려하였고, 또한 현재 인터넷 등의 사용으로 인해 주제분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웹정보원', '저작권과 보안'을 추가하였다. 〈표 3〉은 위의 사항을 근거로 하여 24개 항목에 따른 연구주제별 구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둘 이상의 복수의 주제항목이 연관된 연구논문도 비중이 높은 단일 주제 분야로 연구자가 임의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제별 생산성을 24개 주제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3개 학술지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디지털도서관(도서관자동화) 54편(9.04%), 도서관경영 52편(8.71%), 정보검색 50편(8.37%), 웹정보원 45편(7.53%), 분류목록 41편(6.86%), 참고봉사 및 정보서비스 39편(6.53%), 전문직(교육) 27편(4.52%)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을 덜 받는 연구주제는 도서관사(13편),



〈표 3〉 학회지별 연구주제 분포상황 (계의 %는 개별 학술지로만 산출함)

| 연구주제/학회지       | 문헌정보       | 정보관리       | 도서관정보      | 총계(%)     |
|----------------|------------|------------|------------|-----------|
| 문헌정보학일반        | 5(2.36%)   | 0(0%)      | 8(3.72%)   | 13(2.17%) |
| 도서관사           | 1(0.47%)   | 0(0%)      | 2(0.93%)   | 3(0.50%)  |
| 서지학, 기록보존      | 5(2.36%)   | 1(0.59%)   | 19(8.84%)  | 25(4.18%) |
| 공공도서관          | 5(2.36%)   | 3(1.76%)   | 14(6.51%)  | 22(3.68%) |
| 학교도서관          | 14(6.60%)  | 1(0.59%)   | 10(4.65%)  | 25(4.18%) |
| 지식경영           | 1(0.47%)   | 7(4.12%)   | 3(1.40%)   | 11(1.84%) |
| 웹정보원           | 14(6.60%)  | 13(7.65%)  | 18(8.37%)  | 45(7.53%) |
| 연구방법론          | 3(1.42%)   | 2(1.18%)   | 2(0.93%)   | 7(1.17%)  |
| 도서관경영          | 22(10.38%) | 7(4.12%)   | 23(10.70%) | 52(8.71%) |
| 정보미디어, 장서개발    | 10(4.72%)  | 7(4.12%)   | 9(4.19%)   | 26(4.35%) |
|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 17(8.02%)  | 4(2.35%)   | 18(8.37%)  | 39(6.53%) |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8(3.77%)   | 9(5.29%)   | 6(2.79%)   | 23(3.85%) |
| 이용(자)연구        | 3(1.42%)   | 5(2.94%)   | 8(3.72%)   | 16(2.68%) |
| 전문직(교육)        | 11(5.19%)  | 5(2.94%)   | 11(5.12%)  | 27(4.52%) |
| 독서지도           | 4(1.89%)   | 0(0%)      | 2(0.93%)   | 6(1.00%)  |
| 분류, 목록         | 16(7.55%)  | 7(4.12%)   | 18(8.37%)  | 41(6.86%) |
| 색인, 초록         | 4(1.89%)   | 8(4.71%)   | 5(2.33%)   | 17(2.84%) |
| 정보검색           | 13(6.13%)  | 30(17.65%) | 7(3.26%)   | 50(8.37%) |
| 디지털도서관(도서관자동화) | 18(8.49%)  | 27(15.88%) | 9(4.19%)   | 54(9.04%) |
| 데이터베이스         | 7(3.30%)   | 4(2.35%)   | 0(0%)      | 11(1.84%) |
| 시스템설계구축        | 13(6.13%)  | 8(4.71%)   | 2(0.93%)   | 23(3.85%) |
| 계량서지학          | 7(3.30%)   | 10(5.88%)  | 3(1.40%)   | 20(3.35%) |
| 저작권, 보안        | 3(1.42%)   | 4(2.35%)   | 1(0.47%)   | 8(1.34%)  |
| 기타             | 8(3.77%)   | 8(4.71%)   | 17(7.91%)  | 33(5.52%) |
| 계(%)           | 212(100%)  | 170(100%)  | 215(100%)  | 597(100%) |

연구방법론(7편), 독서지도(6편), 저작권 및 보안(8편)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기할 사항은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등장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웹정보원'에 관한 연구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이전에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던 이 분야의 연구가 이후 5년간에는 연구주제 4위로 파격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과 보안'에 관한 연구도

이 시기부터 연구된 주제이다. 각 학회지별로 자주 연구되는 주제를 살펴보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는 도서관경영 22편(10.38%), 디지털도서관 18편(8.49%), 참고봉사와 정보서비스 17편(8.02%), 분류와 목록 16편(7.55%)의 순서로 나타났고, 정보관리학회지에서는 정보검색 30편(17.65%), 도서관자동화 27편(15.88%), 웹정보원 13편(7.65%), 계량서지학 10편(5.88%),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9편(5.29%)의 순서이다. 한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도서관경영 23편(10.70%), 서지학과 기록보존 19편(8.84%), 웹정보원 18편(8.37%), 참고봉사와 정보서비스 18편(8.37%), 분류와 목록 18편(8.37%)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표하는데 비해 정보관리학회지는 정보학 중심의 연구주제를 많이 발표함으로써 학회지가 지향하는 목표를 주제영역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일반적으로 도서관학 관련 주제보다 정보학 관련 주제들이 더욱 자주 발표되었다는 과거의 연구결과는 이 논문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으나(최희곤 1999) 도서관학의 제 영역이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나타난 점은 의외의 사실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언급할 생각이다. 문헌정보학 분야 단행본을 분석한 최희곤(1999)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 정보검색, 독서지도, 도서관경영, 출판 및 인쇄, 정보미디어의 순으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규명되었으며, 학문의 발전과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증가경향인 주제로는 정보검색, 정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문이, 그리고 감소경향인 주제로는 도서관사, 분류, 목록, 서지학에 관한 논문이라고 밝혔다.

주제별 연구자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교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분야는 도서관경영(45편)으로서, 이는 정보학 위주의 주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통념을 깨 의

외의 사실로 밝혀졌다. 이 이외에 도서관자동화(43편), 정보검색(41편), 분류목록(39편), 웹정보원(38편), 참고봉사 및 정보서비스(35편)의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보학 위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도서관자동화와 정보검색 등에 관한 여전히 많은 연구가 행해지는 것으로 재확인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경영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류와 목록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점차 연구가 감소되는 분야로 지적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의외로 재조명을 받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한가지는 웹정보자원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검색엔진 등을 비롯한 웹 데이터베이스의 주제별 분류체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더불어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주제는 디지털도서관(8편)이며 정보검색(3편), 시스템설계구축(2편), 정보미디어 및 장서개발(2편) 등으로 나타나서 여전히 정보학 위주의 주제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은 웹정보원(6편), 도서관경영(5편), 이용자연구(4편), 참고봉사 및 정보서비스(3편) 등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인터넷을 비롯한 웹정보원이 업무와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고, 이론개발이나 실증적 분석보다는 도서관에서 부딪히는 실무적인 문제해결이나 이용자를 위한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주제에 높은 선호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자별로 수행한 연구주제들

| 연구주제/소속기관      | 교수(강사)      | 학생        | 사서        | 기타        | 계(%)       |
|----------------|-------------|-----------|-----------|-----------|------------|
| 문헌정보학일반        | 12          |           | 1         |           | 13(2.17%)  |
| 도서관사           | 2           | 1         |           |           | 3(0.50%)   |
| 서지학, 기록보존      | 19          | 1         | 2         | 3         | 25(4.18%)  |
| 공공도서관          | 22          |           |           |           | 22(3.68%)  |
| 학교도서관          | 22          |           | 2         | 1         | 25(4.18%)  |
| 지식경영           | 10          |           | 1         |           | 11(1.84%)  |
| 웹정보원           | 38          |           | 6         | 1         | 45(7.53%)  |
| 연구방법론          | 7           |           |           |           | 7(1.17%)   |
| 도서관경영          | 45          | 1         | 5         | 1         | 52(8.71%)  |
| 정보미디어, 장서개발    | 23          | 2         | 1         |           | 26(4.35%)  |
|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 35          |           | 3         | 1         | 39(6.53%)  |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20          |           | 2         | 1         | 23(3.85%)  |
| 이용(자)연구        | 12          |           | 4         |           | 16(28.07%) |
| 전문직(교육)        | 26          |           | 1         |           | 27(4.52%)  |
| 독서지도           | 2           | 1         | 2         | 1         | 6(1.00%)   |
| 분류, 목록         | 39          |           | 2         |           | 41(6.86%)  |
| 색인, 초록         | 14          | 1         | 1         | 1         | 17(2.84%)  |
| 정보검색           | 41          | 3         | 3         | 3         | 50(8.37%)  |
| 디지털도서관(도서관자동화) | 43          | 8         | 2         | 1         | 54(9.84%)  |
| 데이터베이스         | 8           | 1         | 1         | 1         | 11(1.84%)  |
| 시스템설계구축        | 16          | 2         | 1         | 4         | 23(3.85%)  |
| 계량서지학          | 17          | 1         | 1         | 1         | 20(3.35%)  |
| 저작권, 보안        | 7           |           |           | 1         | 8(1.34%)   |
| 기타             | 28          | 1         | 2         | 2         | 33(5.52%)  |
| 계(%)           | 508(85.09%) | 23(3.85%) | 43(7.20%) | 23(3.85%) | 597(100%)  |

#### 4. 3 연구방법의 동향 분석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10개 정도의 연구방법으로 압축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제 분석된 연구논문에서는 연구내용과 목적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많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된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필자가 판단한 연구방법 한가지만을 연구방법으로 계산하였다. 〈표 5〉에 나타난 연구방법의 유형을 보면, 문헌연구가 279편(46.73%), 조사연구가 129편(21.60%), 실험연구가 54편(9.04%), 평가연구가 26편(4.35%), 사례연구가 18편(3.01%), 계량서지학 18편(3.01%), 시스템설계 및 분석방법이 47편(%) 등의 순으로 나왔다. 많은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 문헌고찰이나 이론 및 사적고찰에 그친 문헌연구가

〈표 5〉 학회지별로 사용된 연구방법 (계의 %는 개별 학술지roman 산출함)

| 연구방법/학회지 | 문헌정보         | 정보관리         | 도서관정보        | 총계(%)        |
|----------|--------------|--------------|--------------|--------------|
| 문헌연구     | 75(35.38%)   | 59(34.71%)   | 145(67.44%)  | 279(46.73%)  |
| 조사연구     | 56(26.42%)   | 33(19.41%)   | 40(18.60%)   | 129(21.60%)  |
| 실험연구     | 17(8.02%)    | 29(17.06%)   | 8(3.72%)     | 54(9.04%)    |
| 역사연구     | 6(2.83%)     | 0            | 2(0.93%)     | 8(1.34%)     |
| 평가연구     | 14(6.60%)    | 8(4.71%)     | 4(1.86%)     | 26(4.35%)    |
| 사례연구     | 10(4.72%)    | 3(1.76%)     | 5(2.33%)     | 18(3.01%)    |
| 계량서지학    | 7(3.30%)     | 9(5.29%)     | 2(0.93%)     | 18(3.01%)    |
| 시스템설계    | 14(6.60%)    | 26(15.29%)   | 7(3.26%)     | 47(7.87%)    |
| 실태연구     | 3(1.42%)     | 0            | 0            | 3(0.50%)     |
| 내용분석법    | 5(2.36%)     | 1(0.59%)     | 0            | 6(1.00%)     |
| 기타       | 4(1.88%)     | 2(1.18%)     | 2(0.93%)     | 8(1.34%)     |
| 계(%)     | 212(100.00%) | 170(100.00%) | 215(100.00%) | 597(100.00%) |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실증적 분석을 통한 이론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의 경우에도 양적 평가만을 추구하는 계량적 분석에 치우쳤으며 '왜?'와 '어떻게'를 증시하는 질적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현상 그 자체보다는 보다 근원적이고 처방적인 질적 연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가외변인의 통제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실험연구방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스템설계 및 구축연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실험연구는 정보검색, 계량서지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웹정보원, 디지털도서관 분야에서도 이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설계분석 또한 시스템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도서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 학회지별로 비

교해 보면, 세 학회지 모두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시스템설계 등의 순서로 같은 연구방법론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조사연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외에도 평가연구(14편), 사례연구(10편)를 자주 사용하였다. 정보관리학회지는 다른 어떤 학회지보다 실험연구(29편)와 시스템설계(26편)의 비중이 가장 크고 계량서지학(9편)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문헌연구에 대한 비중은 67.44%(145편)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 중의 한가지가 다른 학술지에 비해 서지학적 논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주제별로 선호되는 연구방법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와 연구방법과의 관계에서 특이사항을 언급해 보면, 문헌정보학 일반에서 역사연구가 사용되었고, 서지학적 연구는 서지학적 방법을, 그리

〈표 6〉 연구주제별로 선호되는 연구방법

| 연구주제           | 전체 논문수 | 1순위       | 2순위                   |
|----------------|--------|-----------|-----------------------|
| 문헌정보학일반        | 13     | 문헌연구(11)  | 역사연구(2)               |
| 서지학, 기록보존      | 24     | 문헌연구(19)  | 서지학적연구(5)             |
| 공공도서관          | 22     | 조사연구(11)  | 문헌연구(7)               |
| 학교도서관          | 25     | 문헌연구(15)  | 조사연구(4)               |
| 지식경영           | 12     | 문헌연구(9)   | 조사연구(2)               |
| 웹정보원           | 45     | 조사연구(20)  | 문헌연구(12)              |
| 연구방법론          | 7      | 문헌연구(5)   | 내용분석법(2)              |
| 도서관경영          | 52     | 문헌연구(25)  | 조사연구(18)              |
| 정보미디어, 장서개발    | 26     | 문헌연구(12)  | 조사연구(6)               |
|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 39     | 문헌연구(15)  | 조사연구(13)              |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23     | 문헌연구(10)  | 조사연구(7)               |
| 이용(자)연구        | 17     | 조사연구(12)  | 문헌연구(3)               |
| 전문직(교육)        | 27     | 문헌연구(13)  | 조사연구(11)              |
| 독서지도           | 5      | 조사연구(2)   | -                     |
| 분류, 목록         | 41     | 문헌연구(38)  | -                     |
| 색인, 초록         | 18     | 문헌연구(11)  | 실험연구(2)               |
| 정보검색           | 50     | 실험연구(35)  | 시스템설계(6)              |
| 디지털도서관, 도서관자동화 | 54     | 문헌조사(21)  | 조사연구(11), 시스템설계분석(11) |
| 데이터베이스         | 11     | 평가연구(5)   | 시스템설계분석(3)            |
| 시스템설계구축        | 23     | 시스템설계(15) | 문헌연구(5)               |
| 계량서지학          | 20     | 계량서지학(13) | 문헌연구(3)               |
| 저작권, 보안        | 8      | 문헌연구(7)   | 조사연구(1)               |
| 기타             | 32     | 조사연구(16)  | 문헌연구(9)               |

고 연구방법론에서는 내용분석법이 사용되었다. 정보검색과 색인초록에서는 실험연구를, 그리고 계량서지학에서는 계량적 분석방법을 각각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평가연구와 시스템설계분석을, 디지털도서관과 정보검색에서도 시스템설계분석방법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4.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방법과 연구방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조사, 질문지, 면접, 관찰, 실험, 인용문헌, 사료, 기타(웹자원 포함)로 구성되었다. 문헌조사의 부류에는 기존의 논문이나 자료 뿐 아니라 통계나 연감 등의 기록자료가 포함되었다. 질문지와 면접, 관찰은 조사연구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나 이 항목에서는 분리하였다. 실험은 주로 실험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인용문헌은 계량서지학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사료는 역사연구에서 사적 자료를 가지고 빈

번히 사용하는 방법이며, 90년대 중반 들어 특히 웹 정보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웹사이트를 비롯한 웹 자원을 기타에 포함시켰다.

자료수집방법을 보면, <표 7>에서 문헌조사가 전체의 과반수인 51.08%(305편)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방법(웹포함)이 100편, 질문지 95편(15.91%), 실험 54편(9.0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특히 기타방법이 증가한 것은 95년 이후 웹정보자원에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계량적인 측정에 치우쳐 질적 연구의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인 면접이라든가 관찰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헌정보학연구에서 계량적 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인 면접, 관찰, 내용분석, 초점면접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가지 학회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해도 전체

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관리학회지에서는 웹정보원과 실험이 질문지보다 더욱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웹정보자원의 자료수집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은 다른 학회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부각되고 있다. 자료수집방법으로서의 웹정보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다른 여타 학술지에 비해 문헌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실험연구가 극히 적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문헌연구에 대한 연구방법의 편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 5 자료분석 방법

<표 8>에서 연구자별 자료분석시에 사용된 자료분석방법, 즉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 7> 학회지별 사용된 자료수집방법 (계의 %는 개별 학술지roman 산출함)

| 자료수집방법/학회지 | 문헌정보       | 정보관리       | 도서관정보        | 총계(%)        |
|------------|------------|------------|--------------|--------------|
| 문헌조사       | 90(42.45%) | 70(41.17%) | 145((67.44%) | 305(51.08%)  |
| 질문지        | 51(24.05%) | 17(10.00%) | 27(12.55%)   | 95(15.91%)   |
| 면접         | 5(2.35%)   | 1(0.58%)   | 3(1.39%)     | 9(1.50%)     |
| 관찰         | 4(1.88%)   | 1(0.58%)   | 3(1.39%)     | 8(1.34%)     |
| 인용문헌       | 7(3.30%)   | 10(5.80%)  | 2(0.93%)     | 19(3.18%)    |
| 사료         | 3(1.41%)   | 1(0.58%)   | 3(1.39%)     | 7(1.17%)     |
| 기타(웹포함)    | 36(16.98%) | 40(23.52%) | 24(11.16%)   | 100(16.75%)  |
| 실험         | 16((7.54%) | 30(17.64%) | 8(3.72%)     | 54(9.04%)    |
| 계(%)       | 212(100%)  | 170(100%)  | 215(100%)    | 597(100.00%) |

〈표 8〉 학회지별 사용하는 통계의 유무 (계의 %는 개별 학술지로만 산출함)

| 통계/학회지 | 문헌정보학회지     | 정보관리학회지     | 도서관정보       | 계(%)        |
|--------|-------------|-------------|-------------|-------------|
| 통계 비이용 | 140(66.03%) | 121(71.17%) | 169(78.60%) | 430(72.02%) |
| 기술통계   | 32(15.09%)  | 30(17.64%)  | 25(11.62%)  | 87(14.57%)  |
| 추리통계   | 40(18.86%)  | 19(11.17%)  | 21(9.76%)   | 80(13.40%)  |
| 계(%)   | 212(100%)   | 170(100%)   | 215(100%)   | 597(100%)   |

통계분석기법을 보면 87명(14.57%)만이 기술통계를, 그리고 80명(13.40%)이 추리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430명(72.02%)은 통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리통계를 사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추리통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편의상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통계 1가지만을 집계하였다. 개별 학회지별로 보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논문이 추리통계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학회지의 내용은 기술통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통계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문헌조사에 크게 의지하는 자료수집방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통계 사용은 평균, 분산, 서열관계 등에 국한되며, 추리통계는 T검증, 분산분석, 카이검증,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추리통계기법은 가설검증을 시도하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현장사서들도 기술통계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을 연구주제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표 9〉와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는 계량서지학(12편), 디지털도서관(10편), 정보검색(8편), 도서관경영(8편), 참고봉사와 정보서비스(6편)의 순으로 나타났고, 추리통계를 많

이 사용하는 주제는 도서관경영(16편), 디지털도서관(11편), 정보검색(8편), 공공도서관(6편), 웹정보원(5편), 이용자연구(5편)의 순서로 나타났다.

추리통계분석을 이용한 80편의 논문의 세부적인 통계기법을 살펴보면, 〈표 10〉에서 분산분석(25편), 카이검증(20편), 상관관계(14편), T검증(11편), 회귀분석(5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도서관경영(16편), 디지털도서관(11편), 정보검색(8편), 공공도서관(6편), 웹정보원(5편), 이용자연구(5편)의 순으로 많은 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경영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16건의 통계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도 분산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디지털도서관(11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통계기법은 분산분석, 카이검증, 상관관계 등을 사용하였다. 정보검색(8건) 분야에서도 분산분석, 카이검증, T검증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상관관계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자연구 분야에서는 카이검증을 많이 사용하였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성격상 모수통계보다 비모수통계를 많이 사용한다는 과거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카이검증이 주종을 이루는 통계기법으로 알려져 있다(Powell 1995).

〈표 9〉 연구주제별 사용된 통계

| 연구주제           | 기술통계 | 추리통계 | 계   |
|----------------|------|------|-----|
| 서지학, 기록보존      | 1    | 1    | 2   |
| 공공도서관          | 2    | 6    | 8   |
| 학교도서관          | 2    | 4    | 6   |
| 웹정보원           | 5    | 5    | 10  |
| 연구방법론          |      | 1    | 1   |
| 도서관경영          | 8    | 16   | 24  |
| 정보미디어, 장서개발    | 5    | 2    | 7   |
|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 6    | 4    | 10  |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3    | 2    | 5   |
| 이용(자)연구        | 4    | 5    | 9   |
| 전문직(교육)        | 3    | 4    | 7   |
| 독서지도           | 2    | 2    | 4   |
| 색인, 초록         | 3    | 2    | 5   |
| 정보검색           | 8    | 8    | 16  |
| 디지털도서관, 도서관자동화 | 10   | 11   | 21  |
| 데이터베이스         | 4    | 2    | 6   |
| 시스템설계구축        | 4    | 2    | 6   |
| 계량서지학          | 12   | 3    | 15  |
| 기타             | 5    |      | 5   |
| 계              | 87   | 80   | 167 |

〈표 10〉 연구주제별로 사용된 추리통계 내역

| 연구주제           | T검증        | 분산분석       | 카이검증       | 상관관계       | 회귀분석     | 기타       | 계          |
|----------------|------------|------------|------------|------------|----------|----------|------------|
| 공공도서관          | 1          |            | 2          | 3          |          |          | 6(7.50%)   |
| 학교도서관          |            | 1          | 2          |            |          | 1        | 4(5.00%)   |
| 웹정보원           | 1          | 2          | 1          | 1          |          |          | 5(6.25%)   |
| 도서관경영          | 3          | 8          | 1          | 2          |          | 2        | 16(20.00%) |
| 정보미디어, 장서개발    |            | 1          |            | 1          |          |          | 2(2.50%)   |
|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 2          |            | 2          |            |          |          | 4(5.00%)   |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            | 1          | 1          |          |          | 2(2.50%)   |
| 이용(자)연구        |            | 2          | 3          |            |          |          | 5(6.25%)   |
| 전문직(교육)        | 1          | 2          | 1          |            |          |          | 4(5.00%)   |
| 독서지도           |            | 2          |            |            |          |          | 2(2.50%)   |
| 색인, 초록         |            | 1          | 1          |            |          |          | 2(2.50%)   |
| 정보검색           | 2          | 3          | 1          | 2          |          |          | 8(10.00%)  |
| 디지털도서관, 도서관자동화 | 1          | 3          | 3          | 2          | 1        | 1        | 11(13.75%) |
| 계량서지학          |            |            | 1          | 1          |          | 1        | 3(3.75%)   |
| 시스템설계구축        |            |            |            |            | 2        |          | 2(2.50%)   |
| 기타             |            |            | 1          | 1          | 2        |          | 4(5.00%)   |
| 계(%)           | 11(13.75%) | 25(31.25%) | 20(25.00%) | 14(17.50%) | 5(6.25%) | 5(6.25%) | 80(100%)   |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의외로 모수통계인 분산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뒤를 비모수통계인 카이검증이 따르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종래의 연구결과와 달리 이러한 현상을 보인 데에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데이터의 속성에서 변인의 값이 종래의 명목척도나 순위척도 위주에서 구간척도나 비율척도 위주로 변화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원인은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 4. 6 가설설정의 여부

분석대상 총 597편 중,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논문은 전체의 6.19%인 37편에 불과하였다. 연구주제별로 이를 살펴보면, 정보검색, 계량서지학, 이용(자)연구, 도서관자동화, 참고봉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설정의 여부를 연구방법과 대비하여 비교해보면, 실험연구, 조사연구 등에서 가설설정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학위논문이 가설을 충실히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설설정과 검증이 빈약한 이유중의 한가지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대부분이 탐색적인 연구에서 그치거나 문헌고찰에 따른 이론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새로운 사조나 이론의 소개도 의의가 있지만 문헌정보학 연구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객관적 방법의 채택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4. 7 이론의 유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에 이론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거하고 있는 이론의 유무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론의 정립 또는 이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연구논문은 25편으로 전체의 4.18%에 불과하였다. 이론에 근거하는 논문의 연구주제는 계량서지학(7편), 도서관경영(3편), 정보미디어(2편), 학교도서관(2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상을 기술하거나 다른 이론을 정리 설명하는 식의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동열이 지적한 바처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이론은 체계적인 형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문헌정보학을 비롯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외국이론을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문헌정보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계 전반의 실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 이론의 원론적인 소개에서 점차 벗어나서, 그리고 다른 학문에서 이론을 빌려오는 단계를 지나서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제 현상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형태로 산재하여 있는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헌정보학의 어떤 연구주제가 어떤 이론들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추후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4. 8 연구비 지원 현황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연구비 없이는 연구도 없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이 될 정도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비의 지급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논문이 그렇지 않은 논문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수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사회과학분야,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수는 전체의 35.35%인 211편이며, 그 중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가 68.24%인 144편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표 11).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율은 13.27%인 28편이고, 정보통신부 4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편, 기타가 8.53%인 18편이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과학재단, 문화관광부, KISTI 등이 포함된다. 이를 분석해보면, 다른 학문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에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교수들에게 연구비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건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에 지급하는 연구비는 아주 빈

약한 실정이다.

연구비 지급 내용을 각 학회지별로 나누어 나타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6.49%), 한국문헌정보학회지(33.64%), 정보관리학회지(29.85%)의 순으로 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경우, 대학지원 연구비의 비율이 높고 외부지원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이나 외부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연구비 수혜 상황을 소속기관별로 다시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대학교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수그룹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2명으로 연구비의 지원은 교수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학이 교수들에게 지원하는 학교내 연구비 지급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부기관의 연구비도 교수그룹에 집중되어서 타 그룹에서는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석박사과정 학생과 강사, 사서그룹을 다 포함해도 약 5%에 불과한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타 그룹은 문헌정보학 이외 분야 연구자들로서 7편의 논문에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회지별 연구비 지원 현황

| 지원부서      | 문헌정보       | 정보관리       | 도서관정보      | 계(%)        |
|-----------|------------|------------|------------|-------------|
| 대학        | 42(%)      | 37(%)      | 65(%)      | 144(68.24%) |
| 학술진흥재단    | 15(%)      | 16(%)      | 7(%)       | 28(13.27%)  |
| 정보통신부     | -          | 3(%)       | 1(%)       | 4(1.89%)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       | -          | 2(%)       | 4(1.89%)    |
| 기타        | 12(%)      | 7(%)       | 2(%)       | 18(8.53%)   |
| 계(%)      | 71(33.64%) | 63(29.85%) | 77(36.49%) | 211(100%)   |

〈표 12〉 소속기관별 연구비 지원 상황

| 지원부서      | 교수          | 학생       | 강사       | 사서       | 기타       | 계(%)        |
|-----------|-------------|----------|----------|----------|----------|-------------|
| 대학        | 139         | 1        | 1        | 2        | 1        | 144(68.24%) |
| 학술진흥재단    | 37          |          | 1        |          |          | 38(18.00%)  |
| 정보통신부     | 1           | 1        |          | 2        |          | 4(1.89%)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4           |          |          |          |          | 4(1.89%)    |
| 기타        | 11          | 2        | 1        | 1        | 6        | 21(9.95%)   |
| 계(%)      | 192(90.99%) | 4(1.89%) | 3(1.42%) | 5(2.36%) | 7(3.31%) | 211(100%)   |

〈표 13〉 연구주제별 연구비 지원 상황

| 연구주제           | 대학          | 학진         | 정통부      | keris    | 기타        | 계(%)       |
|----------------|-------------|------------|----------|----------|-----------|------------|
| 문헌정보학일반        | 4           |            |          |          |           | 4(1.89%)   |
| 서지학, 기록보존      | 6           | 2          |          |          | 1         | 9(4.26%)   |
| 공공도서관          | 8           |            |          |          | 1         | 9(4.26%)   |
| 학교도서관          | 5           |            |          |          |           | 5(2.36%)   |
| 시스템설계구축        | 2           | 2          |          | 1        | 8         | 13(6.16%)  |
| 웹정보원           | 5           | 2          | 1        |          | 1         | 9(4.26%)   |
| 연구방법론          |             | 1          |          |          | 1         | 2(0.94%)   |
| 도서관경영          | 9           | 4          |          |          |           | 13(6.16%)  |
| 정보미디어, 장서개발    | 8           | 1          |          |          |           | 9(4.26%)   |
|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 9           | 2          |          |          |           | 11(5.21%)  |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4           | 1          |          | 1        |           | 6(2.84%)   |
| 이용(자)연구        | 3           |            |          |          |           | 3(1.42%)   |
| 전문직(교육)        | 9           |            |          | 1        |           | 10(4.73%)  |
| 독서지도           | 1           |            |          |          |           | 1(0.47%)   |
| 분류, 목록         | 14          | 3          |          | 1        |           | 18(8.53%)  |
| 색인, 초록         | 4           | 2          |          |          | 1         | 7(3.31%)   |
| 정보검색           | 10          | 4          | 2        |          |           | 16(7.58%)  |
| 디지털도서관, 도서관자동화 | 16          | 8          |          |          | 4         | 28(13.27%) |
| 계량서지학          | 12          |            |          |          |           | 12(5.68%)  |
| 데이터베이스         | 1           | 3          | 1        |          | 3         | 8(3.79%)   |
| 기타             | 14          | 3          |          |          | 1         | 18(8.53%)  |
| 계(%)           | 144(68.24%) | 38(18.00%) | 4(1.89%) | 4(1.89%) | 21(9.95%) | 211(100%)  |

〈표 13〉에서 연구주제별로 어떠한 주제에 가장 많은 연구비가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은 연구주제는 문헌

정보학의 전 주제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도서관 16편, 분류와 목록이 14편, 계량서지학에 12편, 정보검

색에 10편, 참고봉사와 정보서비스에 9편, 전문직(교육)에 9편, 도서관경영에 9편, 공공도서관에 8편, 정보미디어와 장서개발에 8편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을 때에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주제 선택이 비교적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관심영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주제는 디지털도서관 8편, 정보검색 4편, 도서관경영 4편, 분류목록 3편, 데이터베이스 3편 등으로 나타나 정보학을 중심으로 한 주제에 지원이 많았지만 도서관경영이나 분류목록 등의 전통적인 주제에도 여전히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지원과제는 양은 많지 않지만 정보검색 2편, 데이터베이스 1편, 웹정보원 1편으로 나타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원 과제는 시스템설계구축 1편, 커뮤니케이션에 1편, 전문직교육 1편, 분류목록 1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기관에서의 지원은 시스템 설계구축에 8편, 디지털도서관에 4편, 데이터베이스에 3편 등 정보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기관과 재단이 많지는 않지만 이들로부터 연구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이 우선순위를 두는 시기 적절한 연구분야를 찾아내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기관의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연구문제의 중요성, 제시된 문제해결방법의 질적인 우수성 여부, 연구자의 과거실적 등도 지원금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문헌정보학계에서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한 보다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문헌정보학계의 대표적인 3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 597편을 대상으로 연구논문의 연구방법론을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도별 발표논문 수와 연구자의 수, 직종별 유형분포를 조사하였고, 연구방법론 단계에서 고찰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가설설정, 기초한 이론, 연구비 지급 유무 및 종류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각 논문당 공동연구자의 수를 살펴보면, 1인 단독연구는 73.53%이고, 2인 연구는 20.43%, 3인 연구는 4.18%, 4인 이상 공동연구는 1.84%로 나타났으며 단독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회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이며,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은 정보관리학회지로 나타났다. 한편, 학회지의 교수직종의 투고 비율은 77.22%로서 타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사서직종 8.55%, 강사직종 7.21%, 기타(문헌정보학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 4.18%,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 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에서 지난 5년간 가장 자주 연구된 주제는 디지털도서관(도서관 자동화), 도서관경영, 정보검색, 웹정보원, 분류목록, 참고봉사와 정보서비스, 전문직(교육)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관심을 덜 받는 연구주제는 저작권 및 보안, 독서지도, 연

구방법론, 도서관사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등장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웹정보원'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방법의 유형을 보면, 문헌연구가 46.73%, 조사연구가 21.60%, 실험연구가 9.04%, 평가연구가 4.35%, 사례연구가 3.01%, 계량서지학 3.01%, 시스템설계 및 분석방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대표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 실험연구방법과 시스템설계 및 구축방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험연구는 정보검색, 계량서지학과 더불어 웹정보원, 디지털도서관 등에서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시스템설계분석 또한 시스템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도서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수집방법을 보면, 문헌조사가 전체의 과반수인 5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방법(웹포함)이 16.75%, 질문지 15.91%, 실험 9.0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특히 기타방법이 증가한 것은 웹정보자원에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관리학회지에서는 웹정보원과 실험이 질문지보다 더욱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웹정보자원의 자료수집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은 다른 학회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계분석기법을 보면, 14.57%만이 기술통계를, 13.40%는 추리통계를, 그리고 72.02%는 통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통계를 가

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는 계량서지학(12편), 디지털도서관(10편), 정보검색(8편), 도서관경영(8편), 참고봉사와 정보서비스(6편)의 순으로 나타났고, 추리통계를 많이 사용하는 주제는 도서관경영(16편), 디지털도서관(11편), 정보검색(8편), 공공도서관(6편), 웹정보원(5편), 이용자연구(5편)의 순서로 나타났다. 추리통계분석을 이용한 80편의 논문의 세부적인 통계기법을 살펴보면, 분산분석(25편), 카이검증(20편), 상관관계(14편), T검증(11편), 회귀분석(5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데이터의 성격상 모수통계보다 카이검증과 같은 비모수통계를 많이 사용한다는 과거의 연구결과가 이 연구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모수통계의 대표격인 분산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수는 전체의 35.35%인 211편이고, 그 중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가 68.24%인 144편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율은 13.27%인 28편이고, 정보통신부 4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편, 기타가 8.53%인 18편이다. 교수그룹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2명으로 연구비의 지원은 교수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은 연구주제는 디지털도서관 16편, 분류와 목록이 14편, 계량서지학에 12편, 정보검색에 10편, 참고봉사와 정보서비스에 9편, 전문직(교육)에 9편, 도서관경영에 9편, 공공도서관에 8편, 정보미디어와 장서개발에 8편 등으로 나타났다. 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주제는 디지털도서관 8편, 정보검색 4편, 도서관경영 4편, 분류목록 3편, 데이터베이스 3편 등으로 나타나 정보학을 중심으로 한 주제에 지원이 많았지만 도서관경영이나 분류목록 등의 전통적인 주제에도 여전히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의 정립 또는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연구논문은 25편으로 전체의 4.18%에 불과하다. 이론에 의지하는 논문의 연구주제는 계량서지학(7편), 도서관경영(3편), 정보미디어(2편), 학교도서관(2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거나 계승발전시키기 보다는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거나 주장을 강조하는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이론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겠다.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화와 급격히 발달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보학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활성화 이후 새로운 정보기술, 검색엔진의 출현과 웹데이터베이스 기반 연구 등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웹정보원이라는 단일의 주제 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헌정보학의 연구를 한 차원 높이고 다양한 연구진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연구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비롯한 웹 관련 자료가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으로 대두되고

이의 응용을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연구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여러 방법, 예를 들면, 웹자료에 대한 실험연구의 방법, 웹을 통한 설문지 조사, webometrics 등 이들 연구에 선행하는 가정과 전제, 연구방법과 해석 등에서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행해진 문헌정보학 분야의 많은 연구는 서구에서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도입 이후 대개 계량적인 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연역적인 가설의 설정과 테스트, 그에 따르는 변인들의 수치적 분포에 대한 해석은 양적인 연구방향을 쉽게 알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보다 의미있는 분석과 해석을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에 대한 질적 접근방법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박소연 2002). 주어진 연구결과보다 연구과정과 경과를 중시하는 질적연구를 통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를 고양하고, 주어진 현상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현상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인 면접, 관찰, 문화기술법, 인류학적 방법, 참여관찰,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담론분석, 해석학적 연구방법, 내용분석법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문헌정보학 연구는 도서관이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현장연구는 도서관 사서가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을 실제의 상황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의 대부분은 교수들로서 도서관 현장을 간과하고 이론적인 면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훨씬 긴밀한 정도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현장의 실무 사서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 협력적인 기반에서 진행되는 공동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는 여러 학문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응용학문, 나아가 학문간적 학문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간의 공동작업, 또는 학제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문헌정보학이 학제간의 학문으로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들과, 또한 교육자, 연구자,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우수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지원금의 지원이 절대적인 존재이나, 문

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대학 자체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제외하면 지원금을 받는 연구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몇 건의 지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문헌정보학계 내부와 외부 모두 책임이 있을 것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논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파악과 더불어 어떤 연구분야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는지, 또한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연구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대처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협회, 단체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길자. 1995. 『우리나라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근, 이용재. 1996.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24: 107-161.
- 김정근, 이수상. 1997.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125-151.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소연. 2002. “연구방법론 과목의 교육내용 및 현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2): 259-276.
- 설문원, 차미경. 1999.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의의와 과제』,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 pp. 65-92.
- 이란주, 변자영. 2000. 문헌정보학 연구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11(2): 141-156.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23-41.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45-61.
- 최희곤. 1999. 한국문헌정보학 분야 단행본 저작의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6(3): 137-158.
- Callison, D. 1997. "Evolution of methods to measure student information us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 347-357.
- Dimitroff, A. 1995. "Research for special librari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literature". *Special Libraries*. 86: 256-264.
- Feehan, P., Gragg, L., and M. Havenner. 1987.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 173-185.
- Fidel, R. 1993. "Qualitative methods in information retrieval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5: 219-247.
- Julian, H. 1996. "A content analysis of the recent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 53-65.
- Mellon, C. 1990. *Naturalistic inquiry for library science: methods and applications for research, evaluation and teaching*. New York: Greenwood.
- Powell, R. 1999. "Recent trends in research: a methodological essa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1(1): 91-119.
- Powell, R. 1995. "Research competence for Ph.D. stud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36: 319-329.